

# 결혼과사랑

엠마골드만

1910 년

결혼과 사랑에 관한 일반관념은 그것이 동의어이고 같은 동기로부터 생겨나며, 같은 인간의 욕구를 커버한다는 것이다. 대개의 통속관념과 같이 이역시 사실이 아니라 미신에 근거하고 있다.

결혼과 사랑은 공통점이 없다. 그것들은 마치 극과 극처럼 떨어져 있다. 사실, 서로 적대적인 것이다. 물론 어떠한 결혼은 사랑의 결과였다. 그러나 사랑이 결혼을 통해서만 그 자신을 긍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이 습속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혼은 별볼 일 없는 것이지만 단지 여론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 남녀가 요즘 많이 있다. 어쨌든 어떤 결혼은 사랑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사랑이 결혼한 뒤에도 계속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그것이 결혼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결혼 덕분에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다.

반면, 사랑이 결혼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이다. 극히 드물게 부부가 결혼한 뒤 사랑에 빠진다는 기적적인 현상을 듣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단순한 적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상호간에 점차 생겨나는 사랑은 자발성, 강렬함, 사랑의 아름다움과 같은 것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러한 것들의 결여는 남녀 모두에게 반드시 모욕적인 것임이 증명될 수밖에 없다.

결혼은 주로 경제적 합의, 보험계약과 같은 것이다. 일반적인 생명보험계약과 다른 점은 그것이 단지 보다 더 구속력 있고 까다롭다는 것이다. 투자 대비 수익은 미미하다.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금을 일시에 많이 납입하든 아니면 조금씩 나누어 납입하든, 혹은 언제든 자유롭게 납입을 도중에 중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여성이 한번 결혼 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의 이름, 사생활, 자존심, 심지어 목숨까지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바쳐 평생 남편을 위해 납입해야 한다. 더욱이 결혼 보험은 여성에게 평생의 종속을 선고하여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서도 전혀 쓸모없고 기생하는 존재가 되게 한다. 남성 역시 결혼세를 지불하지만 여성보다 그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결혼이 여성에게만큼 그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남성은 그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사슬을 더 많이 느낀다.

이리하여 단테가 말한 지옥의 문에 새겨진 글귀가 결혼에 동등한 힘으로 적용된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결혼이 실패라는 것은 웬만큼 바보가 아닌 이상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 통계를 훑어 보면 누구나 결혼이 얼마나 쓰라린 실패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혼법이 느슨해지고 여성이 점점 문란해지고 있다는 틀에 박힌 팔레스타인식 주장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첫째, 결혼은 열둘에 하나, 이혼으로 끝나고 있다. 둘째, 1870 년 이래, 이혼의 수가 인구 10 만명에 대해 28 퍼센트에서 73 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셋째, 1867 년 이래 이혼 사유로 간통의 수가 270.8 퍼센트 증가했다. 넷째, 버려지는 일이 369.8 퍼센트 증가했다.

이러한 놀라운 통계에 더해 이 문제를 소재로 다루는 문학 희곡이 많이 있다. 로버트 헤릭의 『Together』, 피넬로의 『Mid Channel』, 유진 윌터의 『Paid in Full』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작가들이 결혼의 건조함, 단조로움, 비열함, 불만족 등을 들고, 조화와 이해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논하고 있다.

사려깊은 사회학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변명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결혼이 왜 그렇게 비참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바로 양성의 생활에 더 깊이 파고 들어야 할 것이다.

에드워드 카펜터는 모든 결혼 뒤에는 두 성별의 일생에 걸친 환경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한다. 서로 너무나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서로 타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극복할 수 없는 미신, 관습, 습관의 벽으로 분리된 결혼은 서로에 대한 지식과 존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지 못하며, 그것이 없는 모든 결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회적 허위를 증오하는 헨리크 입센 (Henrik Ibsen) 은 아마도 이 위대한 진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최초의 사람이었다. 노라가 그녀의 남편을 버린다 — 그것은 어리석은 비평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녀가 자신의 책임에 권태를 느끼고 여성의 권력이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8 년간 생면부지의 남과 생활하며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일면식도 없는 두 사람이 평생에 걸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더 비열한 타락이 있을 수 있을까. 여성은 남편의 수입 이외에 남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남성이 여성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마음에는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아직 여성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신학적 신화, 남성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신학적 신화에서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할 정도로 강인한 남성의 편의만을 위해 그의 갈비뼈로 만든 것이다.

아마도 여성이 열등하다고 하는 것은 여성이 만들어낸 재료의 성질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여성에게는 영혼이 없다 — 여성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영혼의 본자가 적으면적을 수록 아내로서의 가치가 커지고, 더욱 쉽게 남편과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이른바 결혼 제도라는 것을 보존한 것은 이 남존설男尊說에 대한 맹종적인 묵인으로, 이제 여성은 진정으로 주인의 은혜에서 벗어난 존재로서 스스로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성한 결혼 제도는 점점 훼손되고 있으며 어떤 감상적한 탄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딸들은 어려서부터 결혼이 그녀의 최종 목표라는 말을 듣는다. 따라서 그녀의 훈련과 교육은 그 목표를 향해야만 한다. 잘못된 동물도 살을 위해 살찌워지는 것처럼 그녀는 이를 위해 준비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가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직무에 대해 알게끔 허락된 것은 보통 직공들이 그 작업에 대해 아는 것보다 아주 적다. 훌륭한 소녀가 결혼 관계에 대해 아는 것은 무례하고 야비하다는 것이다. 오, 그 존엄의 모순 때문에 결혼 서약을 필연적으로 불결한 것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신성한 결정으로 바꾸어, 누구든지 과감히 그것을 묻거나 혹은 비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확실히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미래의 아내와 어머니는 성성이라는 경쟁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유일한 자산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 그리하여 그녀는 한 남성과 평생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본능인 섹스에 의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격분하고, 분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혼 생활의 불행, 불행, 괴로움, 육체적 고통의 상당 부분이 큰 미덕으로 찬미받는 성문제에 대한 최악적 무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탄스러운 사실 때문에 많은 가정의 파멸로 끝을 맺었다고 내가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여성이 충분히 자유롭게 성장하여 국가나 교회의 허가 없이 성의 신비를 배울 수 있다면, 그녀는 “좋은” 남성의 아내가 되기 전에 허부적절하다며 하여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다. “좋은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머리와 많은 돈에 불과하다. 생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건강하고 성장한 여성이 자연의 요구를 거부하고, 가장 격렬한 욕구를 억제하고, 건강을 해치고, 정신을 망가뜨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더 황당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좋은” 남성이 나타나서 자신을 아내로 데려가기 전까지 성경험의 심오 함영광에서 버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더 더 무니 없는 것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이다. 이 같은 조합이 실패가 아니면 무엇으로 끝날 수 있을까? 이것은 비록 가장 중요하지는 않지만 결혼의 한 요소로서, 결혼을 사랑과 구별 짓는 것이다.

우리 시대는 실제적인 시대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는 부모님의 분노를 무릅쓰고서 서로 사랑하고, 그레첸이 사랑을 위해 이웃들의 소문 에스스로 드러냈던 시대는 지났다. 설령 동물계 젊은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로맨스에 빠져들어도, 그들은 연장자의 감시를 받고, 그들이 ‘성품이 좋아질’ 때까지 훈련을 받고 짓이겨진다.

소녀에게 주어지는 도덕적 교훈은 남성이 ‘어떻게’ 그녀의 사랑을 불러일으켰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사랑을 불러일으켰느냐에 있다. 남성에게 경제력이 있을까? 그가 아내를 부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실제적 미국 생활의 중요한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결혼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유일한 조건이다. 이것이 점차 모든 소녀의 사상에 침투한다. 그의 꿈은 달빛과 키스도 아니고 웃음과 눈물도 아니다. 그녀는 쇼핑 투어와 할인 판매대를 꿈꾼다. 이러한 영혼의 빈곤과 비도덕성은 결혼 제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이다. 국가와 교회는 다른 어떤 이상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와 교회는 단지 남녀를 지배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사랑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이는 경제적인 필요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독립을 재촉받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러하다. 그 거대한 원동력에 의해 해움직여진 놀라운 만큼의 여성 지위의 변화는 여성들이 산업의 각 축장에 들어온 이래 얼마나 근소한 시일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볼 때 참으로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600 만명의 여성 임금노동자,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600 만명의 여성들이 착취당하고, 도둑맞고, 파업하고, 심지어 굶고 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지? 그렇다,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최고 두뇌 노동에서 광산 또는 철도 노동, 아니, 탐정 및 경찰에까지 종사하는 600 만 여성 임금노동자. 확실히 해방은 완료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성 임금노동자 중 극소수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남성과 같은 관점에서 영구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남성은 아무리 노쇠해도 그는 독립적이고 자급자족 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오, 나는 어느 누구도 우리 경제 발전판에서는 진실로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구나 가장 불쌍한 남성 표본도 기생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고, 아니 적어도 기생한다고 알려지는 것을 증오한다.

여성노동자는 자기의 지위를 임시적이라고 생각하며 먼저 음입찰자에 의해 내던져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것이 남성보다 여성을 조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유다. “내가 왜 조합에 가입해야 하지? 나는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릴 거야.” 그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그녀의 궁극적인 소명으로 간주하도록 배워 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녀는 가정이 비록 공장과 같이 큰 감옥은 아니라고 해도 한층 견고한 문과 빔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정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충실한 파수꾼을 가지고 있다. 가장 비참한 것은 가정 이더 이상 임금노예로부터 그녀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단지 그녀의 일감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제출된 “노동, 임금, 인구 집적”에 관한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의 노동자 중 기혼자는 겨우 10% 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임금으로도 노동을 계속해야 한다. 이 끔찍한 현상이 가정의 노역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정의 보호와 영광에 무엇이 남겨질 것인가? 사실 결혼한 중산층 소녀조차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녀 주변을 만들어내는 것은 남성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짐승인지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은 오직 남편의 은혜만으로도 여성에게 가정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매년 그녀의 인생과 생활에 대한 면모가 그녀의 주변 환경처럼 평평하고 좁고 칙칙해질 때까지 남편의 집을 돌아다닌다. 그녀가 잔소리하고, 웅졸하고, 시비 걸리고, 험담하고, 참을 수 없는 사

람이되어그남자를집밖으로몰아내는것은별로놀랄일이아니다. 그녀는가고싶어도갈수없었다. 갈곳이없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대부분의부인들은결혼후얼마되지않아모든능력을완전히상실하고바깥세상에대해절대로무능한것으로변한다. 그녀의외모에부주의해지고, 동작은추해지고, 결정의존하게되며, 판단에겁이많아지고, 뚱뚱해지고지루해지며대부분의남성이미워하고경멸하게된다. 삶을이어가기에아주멋진분위기가아닌가?

그러나만약결혼이없다고하면어린이는어떻게보호받을까? 결국이것이가장중요한이유인것은아닐까? 무슨허위이자위선적인말인가! 결혼이어린이를보호한다고해도가난하고집없는어린이수천명있지않은가. 결혼이아이를보호해도고아원과소년원은넘쳐나지않는가. 그리고아동학대방지협회는항상‘사랑하는’부모로부터작은희생자를구해내고그들의부모보다더욱친절한아동보호회의손에그들을두려고노력하고있지않은가. 아아, 이무슨모욕인가.

결혼은“말을물가로데려갈”힘을가지고있을지도모른다, 그러나말에게물을먹일수있는힘은가지고있지않다. 법률은아버지를구속하고그에게죄수의옷을입힌다. 그러나그것이어린이의배고픔을가라앉힌적이있는가? 부모가직장이없거나신분을숨긴다면그때결혼은어떻게되는가. 결혼은그남자를“재판”으로데려오기위해, 그를안전하게문안에가두기위해법을발동한다. 그러나그의노동은어린이가아니라국가에도움이된다. 어린이는그저아버지의옷가지에대한아련한기억을가지게될뿐이다.

소위여성의보호에대해서는 — 그곳에결혼의저주가잇는다. 결혼은진정그녀를보호하지않을뿐만아니라보호라는생각자체가이미혐오스러워할만한것이다. 이와같은것이실로인생을유린하고모욕하며인간의존엄성을떨어뜨리는것이다. 이기생적제도는영원히물아내야만한다.

그것은마치다른부성애적방식인자본주의와같다. 그것은인간의타고난권리를빼앗고, 성장을방해하고, 인간의몸을오염시키며, 인간을무지와가난과의존속에잇게하고, 그런뒤인간자존심의마지막흔적에영위하는자선을조작한다.

결혼이라는제도는여성을기생충으로, 절대적으로의존적인존재로만든다. 결혼은삶의투쟁에대해여성을무력화시키고, 그녀의사회적의식을말살시키고, 상상력을마비시킨다음, 그자애로운보호를강요하는데, 이는진정올가미이자인간성에대한희롱이다.

만약모성이여성의본성을가장잘충족시키는것이라면, 사랑과자유를이외에어떠한보호를필요로하는가? 결혼은여성의완성을유린하고, 화나게하고, 타락시킨다. 결혼은여성에게“네가나를따라올때에만너는생명을낳으리라”라고말하지않는가. 만약여성이자신을팔아모성애를사는것을거부한다면결혼은그녀를헐뜯고욕되게하지않는가. 결혼은설령여성인증오와강박에의해임신하는일이있어도모성애를재가하지않는가. 그러나만일모성애가자유로운선택, 사랑, 황홀, 치열한정열의결과라면, 결혼은무고한머리위에가시관을씌우고괴로사생아라는무서운단어를새기지않는가. 만약결혼이그것에대해주장된모든미덕을포함한다면, 모성애에반하는범죄는결혼을사랑의영역에서영원히추방시킬것이다.

인생전반에걸쳐가장강하고깊은요소인사랑, 희망의전조, 기쁨의전조, 황홀감의전조, 모든관습의반항, 사랑, 인간운명의가장자유롭고가장강력한형성자인사랑. 이렇게모든것을압도하는힘이어떻게국가와교회가낳은잡초, 즉결혼과동의어가될수있겠는가?

자유로운사랑? 마치사랑이자유이외의것인양말한다! 인간은많은지혜를샀지만, 전세계수백만명은사랑을사는데실패했다. 인간은육체를정복했지만지상의모든권력도결국사랑을정복할수는없었다. 인간은온나라를정복했지만, 그의모든군대는사랑을정복할수없었다. 인간은정신을쇠사슬로묶고족쇄를채웠지만사랑앞에서는전혀속수무책이었다. 왕좌에높이올라, 황금으로명령할수있는모든화려함과화려함을가졌더라도사랑이그를스쳐지나간다면그는외롭고처량하다. 사랑이있는곳은가장궁핍한오두막에서도생명과색채로따뜻하게빛나고있다. 이리하여사랑에는거지를왕으로만드는마법의힘이있다. 그렇다, 사랑은자유인것이다. 사랑은자유이외의어떤대기에서도살수없다. 오직자유에서만사랑은자신을충분하고완전히게부여할수있다. 사랑이한번뿌리를내리면우주의어떤법률도, 어떤법정도흙에서그것을뜯어낼수없다. 하지만만약땅이불모라면결혼은어떻게과실을수확할수있겠는가. 그것은죽음과맞서는덧없는삶의마지막필사적인투쟁과같다.

사랑은보호가필요없다. 그것은그스스로보호한다. 사랑이생명을얻는한, 어떤아이도애정결핍으로버려지거나, 배고프거나, 굶주리지않는다. 나는이것이참인것을알고있다. 나는그들이사랑한남성들에의해자유롭게어머니가된여성들을많이알고있다. 그러나어떤어린이라도자유로운어머니가줄수있는주의와보호와헌신을향락하는것은어려울것이다.

권위를옹호하는사람들은자유로운모성애가그들의먹잇감을빼앗을까봐두려워한다. 누가전쟁을하겠는가? 누가부를창조하겠는가? 만약여성이어린이의무차별양육을거부한다면누가순경이되고간수가되겠는가?

가? 종족, 종족! 왕과대통령과자본주의자, 사제가외친다. 비록여성이단순한기계로전락하더라도, 종족은 보존되어야한다 — 그리고결혼제도는여성의해로운성성의각성에대한유일하게안전한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속박상태를유지하기위한이러한광란의노력은허사였다. 역시교회의척령, 통치자들의미친공격, 법의팔조차소용없다. 여성은더이상가난과노예제도의명예를벗어던질힘도, 도덕적용기도없는병들고, 미약하고, 노쇠하고, 비참한인간들의종족생산당사자가되고싶지않다. 대신에여성결혼이그러한것처럼강요에의해서가아니라, 사랑과자유로운선택을통해더적은수의더 나은아이들을원하고있다. 우리의사이비도덕주의자들은자유로운사랑이여성의가슴속에서깨운아이에대한깊은책임감을배워야만한다. 멸망과죽음만을숨쉬는대기속에서생명을낳기보다는, 차라리여성모성의영광을영원히버릴것이다. 그리고만약엄마가된다면, 그것은아이에게여성의존재가양보할수있는가장깊고최고의것을주는것이다. 아이와함께성장하는것이그녀의좌우명이다. 그녀는그것만이며여성진정남성과여성의건설을돕게된다는것을알고있다.

입센이훌륭한숨씨로알빙부인을묘사했을때, 그는자유로운어머니의환상을보고있었음에틀림없다. 그녀는이상적인어머니였다. 그녀는결혼과그모든공포를극복했다. 그녀는스스로의사슬을타파하고, 그녀의자유로운정신을고양시켜재생되고강해질때까지자유롭게치솟게했다. 아아, 그녀의삶의기쁨인오스왈드를구하기에는너무늦었지만, 자유로운사랑이아름다운삶의유일한조건이라는것을깨닫는데에는늦지않았다. 알빙부인처럼피와눈물을대가로치러정신적각성을얻은사람들은결혼을허위, 천박, 공허한모욕으로여겨부인한다. 그들은사랑이단한번의짧은시간동안만지속되든혹은영원히지속되든그것이새로운종족, 새로운세계를창조하고, 고무시키고, 고양하는유일한기초임을알고있다.

피그미족처럼왜소한현재우리의상태에서사랑은사실대부분의사람들에게낮선것이다. 오해와기피로좀처럼뿌리를내리지못하거나, 어쩌다우연히뿌리를내려도곧시들어버린다. 사랑의섬세한섬유질은날마다갈기갈기찢기는압박과긴장을견딜수없다. 그것의영혼은너무나복잡해서우리사회조직의끈기있는씨실 스스로를적합하게할수없다. 사랑은그것을요구하는사람들과함께울고탄식하며괴로워하지만그럼에도그절정에오를능력결여되어있다.

언젠가, 언젠가는남성과여성이일어나그최고봉에도달할것이다. 그들은크고, 강하고, 자유롭게성장해 만날것이다. 그리고그들은사랑받을준비를하고, 헤어질준비를하고, 사랑의황금빛을뿌릴날이올것이다. 얼마나화려하고상상력넘치는어떤시적천재가남녀의삶에서그러한힘의잠재력을대략적으로나마예견할수 있을까. 만약세상이진정한교제와온정을낳는다면, 결혼이아닌사랑이부모가될것이다.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엠마골드만  
결혼과사랑  
1910 년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